

# 도내 당뇨병 환자 증가율 전국 3위

### 인재근 의원 국감 자료 지난 5년간 18.9% ↑ ... '10만명당 진료 인원' 5825명으로 전국 5위

도내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당뇨병 진료 인원'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북은 5,825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이 6,77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강원(6,310명)과 경북(6,026명), 충남(5,872명)의 순으로 전북은 전국

5번째를 차지했다.

하지만 증가율로만 보면 전북은 이보다 높다.

지난 5년간 시도별 증가율로는 전남이 22% 증가해 1위를 차지한데 이어 경북(20.2%), 전북 18.9% 순으로 전국 3번째다.

충북 16.2%, 제주 15.9%, 강원 15.3%가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은 3.9% 울산은 4.9%, 경기도는 1.3%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2011년부터 5년간 당뇨

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179만명을 넘어섰고 그에 따른 진료비는 약 7조 8,980억원이다.

2011년 약 219만4,000명이었던 연간 환자 수는 2015년 약 255만2,000명으로 약 16.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총 진료비 또한 2011년 약 1조 4,339억원에서 2015년 약 1조 8,150억원으로 약 26.6% 증가했다.

연령대별 진료율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50대 이상이 전체의 83.4%(약 983만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9세 이

하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증가세를 보여 80세 이상 57.9%, 70대 20.7%, 60대 17.3%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급증하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당뇨병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그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만큼 우리의 의료현실을 반영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 도내 저수지 9곳, 물고기도 못살아

### 최하 V등급 받아... 11곳은 농업용수 사용 불가 V등급

도내 일부 저수지의 경우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만큼 수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수질 기준 초과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9개 저수지에서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수질을 보였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전국 저수지(1만7,423곳) 중 975개 저수지에 대한 수질을 측정해 발표한 결과이다.

도내에서는 11개 저수지에 대한 수질 검사가 이뤄졌는데, 그 결과 11개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V등급(나쁨)을 받았고, 9개 저수지는 용존산소가 거의 없어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VI등급(매우나쁨)을 받았다.

위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오염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저수지 중 유효저수량이 50만 톤 이상 또는 수해면적이 30ha 이상인 국가관리저수지와 유효저수량이 20만 톤 이상이거나 수해면적이 30ha 이상인 시·군관리 저수지에 대해 매년 수질을 조사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 전북 교권침해 최근 5년간 713건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5년(2011~2015년)간 713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또 올해 1학기에도 43건의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됐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학생에 의해 발생했고, 폭언과 폭행이 가장 많다. 또 수업진행 방해와 학부모 침해·교사 성희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이유는 주로 자신에게 혼계를 했다는 것이며, 학부모들은 상담 또는 전화 통화 과정에서 교사에게 욕설 등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21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김형원 군산 부시장, 남경환 효성ITX(주) 대표이사, 김형욱 (주)KT전주 등 참석자들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원 군산 부시장, 남경환 효성ITX(주) 대표이사, 송하진도지사, 김형욱 (주)KT전주.

## 군산시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한다

### 근대문화거리에 와이파이·비콘 설치... 11월부터 서비스 제공

군산시가 근대문화거리에 와이파이와 비콘 설치로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11월부터는 관광객이 스마트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21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 김형원 군산부시장, 효성 ITX(주) 남경환 대표이사, (주)KT 김형욱 전무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한 업무협약은 군산시와 전라북도, 효성ITX(주), (주)KT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군산시의 대표관광지인 근대문화거리에 공공와이파이와 비콘

(근거리 기반 위치 인식 기술)를 구축,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인터넷과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우리만의 여행', '나만의 여행'을 원하는 개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한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정보 및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구축 시행한다.

군산시는 업무협약을 통해 기본 인프라 지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콘텐츠 개발지원 자금 지원, 관광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토달관광 마케팅 지원, 지역기반 관광상권 경제활성화 전략지원 등의 사항을 추진

한다.

효성ITX(주)와 (주)KT는 군산시 대표관광지 내 공공와이파이 및 비콘 구축, 무선인터넷 이용 편의 증진 지원, 공공와이파이 보급 확대 및 스마트관광시티 조성사업 지원, 향후 관광정보와 위치기반 서비스 등을 활용한 ICT 기반의 공동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집되는 개별 관광정보를 분석해 군산의 관광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군산민의 특화된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및 관제센터 플랫폼을 효성 ITX(주), (주)KT가 연계해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 전북소방항공대 '3000시간 무사고 비행'

### 1997년 1월 발대 이후 약 20년간 2720회 출동 1920여명 구조

전북소방본부 소방항공대가 '3,000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다.

3,000시간은 125일 동안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이며, 지구 둘레를 15바퀴(66만km) 비행한 거리이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항공대는 1997년 1월 1일 1대의 헬기 항공대를 발대해 이후 약 20년간 안전 무사고 비행의 신기록을 이뤘다.

그동안 도 소방항공대는 구조 구급활동, 산발진화 등 총 2720회 출동해 1920여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했다. 또 산발 진화 등을 통해 도민의 귀중한 재산을 지켜냈다.

이 같은 무사고 비행 기록은 평소 이틀간 근무하고 있으며, 소방헬기 1대, 규정과 절차 준수, 실전 위주 비행훈련과 철저한 항공기 정비를 통해 얻

어낸 값진 결과라고 소방본부는 자랑했다.

특히 지리산, 덕유산 등 험준한 산악지역에서의 열악한 비행조건 속에서 이뤄진 기록이어서 그 의미가 깊다.

이선재 전북소방본부장은 "조종사, 정비사 등 항공대원 모두가 항공안전을 바탕으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라며 "앞으로도 항공 안전사고 제로화 및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소방항공대는 현재 조종사 4명, 정비사 2명, 구조구급대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방헬기 1대, 유조차 1대, 구조구급장비 38종의 장비비를 갖추고 있다.

/고민형 기자

산과 강과 인심이 만나는 향토문화축제

제54회

# 소총·사선문화제

◆ 초·청·의·말·꿈 ◆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된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오곡백과 풍성한 천고마비의 계절에 농촌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전북도민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산과 강과 인심이 만나는 향토 문화 축제!

2016년 제54회 소총·사선문화제 행사와 「소총·사선문화제 시상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합니다.

효남 제일성!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축제의 장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9월

시·소총·사선문화제위원회 위원장 양영두

일정	시간	내용	장소
9.22일 (목)	09:00 - 16:00	행년 맞이 무사고 및 놀이공연	한주~일남~남원
	10:30 - 12:30	사선산 내 신원제	사선주막
9.23일 (금)	17:00 - 19:00	간사(농촌·문화·관광) 및 민간단체, 예술가공연	사선대왕릉정원
	10:00 - 12:00	왕산 시민예술단 공연	사선대왕릉정원
	15:00 - 17:00	제3회 사선내 삼일군구 대회(제 1선)	사선대왕릉정원
9.24일 (토)	17:00 - 18:30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문화공연	사선대왕릉정원
	18:30 - 21:00	제2회 사선가요제(본선)	사선대왕릉정원
	09:00 - 14:00	제22회 전북도립농악공연(본선)	사선대왕릉정원
9.25일 (일)	15:00 - 18:00	제30회 사선내 신원제 대회(본선)	사선대왕릉정원
	18:30 - 21:00	사선내산악 30주년 특집 전통예술 축하공연 "농악+무용+민속+민요+민가+민중가요+민요+민중가요" 이수진(전북도립농악단)공연(본선)	사선대왕릉정원
9.25일 (일)	09:00 - 14:30	제22회 전북도립농악공연(본선)	사선대왕릉정원
	16:30 - 17:30	제25회 소총·사선문화제 시상식	사선대왕릉정원
9.25일 (일)	17:30 - 22:00	JTV 전주방송특집축하공연(본선) * 출연: 유대중, 최민희, 안희, 김진, 송지나, 소문, 장유아, 송지나, 안희, 김진, 송지나, 소문	사선대왕릉정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